**이상한 러브레터**

사랑과 사람과 세상과 무의미한 삶.

내 삶, 내 모든 것들이

의미가 없다는 느낌과 싸우고 있어.

내 삶에 놓여진 당신은

이상한 존재야.

스스로에게 해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

그러한 관계를 반복하지.

유독한 걸 알면서도.

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걸 나는 알아.

선택을 내려.

“죽음!”

내가 싸워서 죽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…

공포스럽고 무서운 결론에 이르면

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.

“이 모든 게 다 사랑에 대한 거라고?”

내 마음은 여전히 슬퍼.

입속에는 이미 담배가 물려져 있지.

아직 불을 붙여 본 적이 없는 거야.

나는 혼자야.

이렇게 피곤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당신.

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게 될 운명이겠지.

하지만 사랑스러운 내 사랑.

내내 어여쁘소서.

**충동**

나는 외로운 삶을 사는데는

천하 제일의 고수다.

말끔한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

오늘도 과식을 해버렸다.

그러면 소화를 하느라 두뇌에

충분히 산소가 안간다.

그러면 생각을 안 해도 된다.

통증과 졸리움에 집중해도 된다.

외롭게 사는 게 좋은 걸까.

그러나 반례가 있어.

나는 속으로는

누군가 내게 와서

내 뺨을 때리고 내 손목을

칼로 그어 줬으면 좋겠어.

나는 이 마음의 고통을

참을 수가 없어서

몸의 고통으로 옮기고 싶어.

오늘은 유난히

자살하고 싶은 날이다.

편안하게 살려면

어떻게 해야하지?

**지옥**

지옥에서 구원을 찾는 것만큼

미련한 일은 없을 거야.

그분의 가르침과 은혜는

오직 천국에서만

이해될 수 있거든.

지옥에서는

지옥에서처럼 살아도 돼.

지옥에 사는 동안에는

죄악을 저지르지 않을

마땅한 방법이 없지.

유일한 구원은

지옥을 탈출해야

얻어낼 수 있어.

지옥을 빠저나갈 수

없는 사람이 있다면?

알라스.

그들을 위한 천국은

존재하지 않는거나

다름없어…

**Nu**

외롭다

혼자있고싶다

외로워서혼자있고싶다

이미나는혼자있다불안

에떤다나는모든게잘되

고있는데평화로운나날

나는불안에떤다

이사실을아는것은

오직나밖에없소이다

누구에게도의

지하지않는다누구도나

에게의지하지않는다

그 렇지않은것은참으로

이 상한일처럼느껴진다

비 현실적인일처럼

느 껴진다

비

도덕적인일처럼

느껴진다

혼자다.

자러간다.